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드

Global Supply Chain Insight

금주의 공급망 Insight

최신 공급망 해외 이슈

- 【법안, EU】 Fit for 55 관련 법안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
- 【내연차, EU】 EU, 합성연료 사용 내연차 '35년 이후 판매 허용' 전망
- 【자동차, 인도】 글로벌 자동차 업계, 중국 판매량 감소에 인도에 앞다퉈 투자
- 【희토류, 중국】 중국, 올해 희토류 생산 최대로 확대
- 【희토류, 일본】 日 희토류 탈중국화 위한 미국·호주 등 투자 및 교류 확대
- 【광물, 미국-캐나다】 미국-캐나다, 핵심광물·반도체 협력
- 【식품, 영국】 영국, 유전자 교정 식품 판매 합법화
- 【바이오, 미국】 美 원료의약품(API)의 최소 25% 자국 생산 목표 제시
- 【정상회담, 중·러】 중·러 정상, 모스크바서 정상회담 개최 및 공동성명 발표

공급망 뉴스 더하기

- ① EU,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 발표
- ② 美 상무부, CHIPS Act 가드레일 조항 세부 내용 발표

공급망 돋보기

캐나다의 핵심광물 가치사슬 구축 전략

공급망 전문가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美 정부의 노력과 과제 1편

공급망 소식통

2023 상반기 북업코리아 수출상담회 개최 안내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 최신 공급망 해외이슈

■ [법안, EU] Fit for 55 관련 법안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

- Fit for 55* 관련 3개 법안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3.14)

* Fit for 55 : '30년 EU 온실가스 배출 55% 감축(90년 대비)을 목표로 한 13개 정책 패키지로 '21.7월 집행위가 세부 법안의 초안 상정 후 현재 법안별 입법 진행 중

- (토지이용 및 변경·산림 규정, LULUCF) 토지이용 및 변경, 산림 부문 온실가스 흡수량 '30년 3.1억톤 달성 및 배출량(90년 대비) 57% 감축 추진을 위해 천연 탄소흡수원을 확대·회원국별 구속력 있는 배출감축 목표 설정
- (회원국노력분담규정, ESR) 도로운송·건물·농업·소규모산업시설·폐기물관리 부문 내 '30년 EU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05년 대비) 위해 1인당 GDP 및 비율 효율성 토대로 국별 감축 목표 설정
- (건물에너지 효율지침, EPBD) '50년 모든 건물 내 탄소배출 제로 위한 리모델링 전략으로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 넷제로, 화석연료 난방금지 등의 내용 마련

- 발표된 Fit for 55 법안은 이사회 승인 후 관보 게재 또는 EU 이사회와 협상 통해 합의안 도출 예정

출처: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 [내연차, EU] EU, 합성연료 사용 내연차 '35년 이후 판매 허용 전망

- EU-독일, 합성연료 주입 내연기관차 지속 판매 허용 합의(3.25)

- CO2 배출규제 개정안*은 최종 이사회 공식채택만을 남긴 상황에서 독일 등 회원국이 입장을 변경하여 **표결이 무기한 연기** 중이었으며, 개정안 내용 중 '35년 부 내연기관 신차판매 금지에 대한 반대국가의 의견을 수용하여 일부 내연차를 예외적 허용하는 법안 마련 예정

* '35년까지 승용차·밴 CO2 배출량 감축 목표 100% 설정, 사실상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Fit for 55 관련)

- 이로써 '35년 이후에도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 판매는 가능해질 전망

* 단, '연료공급유도시스템(합성연료가 아닌 다른 연료 주입 시 운행 중지) 도입 예정

- 합성연료는 물을 전기분해하여 얻은 수소와 공기 중 포집된 CO2를 합성하여 만든 액체 탄화수소 연료(합성연료 지지자들은 생산 시 포집되는 CO2양이 배출량을 상쇄한다고 주장)

- 기존 내연차 엔진에 주입할 수 있으며, 바이오연료 대비 제조시간 단축 및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 화석연료기업·부품기업 등 지지
- 생산비용이 높아 상용화 및 대량 생산을 위한 과제는 남아 있음

■ [자동차, 인도] 글로벌 자동차 업계, 중국 판매량 감소에 인도에 앞다퉈 투자

- 3.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세계 자동차 업계가 최대 시장인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줄자 인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보도

- (폭스바겐) '22.8월 마힌드라&마힌드라와 5종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부품 공급 계획 맺음
 - (닛산자동차) '23.2월 르노와 함께 6개 신모델 생산 위해 인도에 6억 달러(약 7,840억 원) 투자계획 발표
 - (현대차) 3.13일 제너럴모터스(GM) 인도 공장 인수 계획 밝힘
- 인도 자동차 시장은 저가 소형차가 지배하는 시장 특성으로 외면받았으나, **소득 증가**와 함께 자동차 구매 패턴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세계 자동차 업체 진출 증가**
- 최근까지 인도 자동차 시장은 日 **스즈키자동차** 인도 법인 마루티 스즈키의 저가 소형차 판매량이 **지난 20년간 인도 연간 승용차 판매량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이익률이 비교적 높은 중대형 차량 위주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는 진출이 어려웠음
 - * '21년 **포드자동차**는 인도 내 새로운 차량에 대한 수요가 약하여 **인도 시장 철수**, GM·미쓰비시자동차 등도 인도 시장 포기
- 최근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줄면서 대안으로 인도에 대한 투자 증가 추세
- 중국의 승용차 판매량은 정점을 찍은 '17년 2,500만 대 이후 **감소 추세**로 '22년 2,360만 대 기록
 - 경영컨설팅 회사 Arthur D. Little, 인도의 승용차 판매량이 현재 **연간 380만 대 → '30년까지 750만 대 증가 전망**
- 출처: 월스트리트저널(3.21), G글로벌경제신문(3.22)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희토류, 중국] 중국, 올해 희토류 생산 최대로 확대

- 지난 26일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자연자원부는 2023년 상반기 희토류 채굴·제련 총량 및 배분지침을 기업들에 하달함
- 작년 하반기보다 **10% 늘어난 규모**로, 올해 상반기 희토류 채굴량을 12만t, 제련량을 11만 5,000t으로 제시
 - 중국의 연간 채굴량 기준은 2021년 16만 8,000t, 2022년 21만 7,200t으로 **급증하는 추세**
 - 세계 최대 희토류광산인 바이윈어보광산 채굴권을 보유한 국유기업인 베이팡희토가 상반기에 *8만 9,430t을 배정받음
 - * 2021년 미국과 호주의 생산량은 각각 4만 3,000t, 2만 2,000t에 불과
- 출처: 한국경제(23. 3. 27일) 한국경제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

■ [희토류, 일본] 日 희토류 탈중국화 위한 미국·호주 등 투자 및 교류 확대

- 일본은 중국 희토류* 무기화를 대비하여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우방국인 호주 광산에 투자 확대**
- 日 종합상사 소지쓰와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G)은 호주 라이너스사가 수년 내 생산을 시작하는 디스프로슘(원소기호 66번)·터븀(65번) 등 **중희토류의 최대 65%***를 일본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
 - * 日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이번 대응으로 日 희토류 수요의 약 30% 충족가능할 것으로 전망
 - 라이너스사는 서호주 마운트 웰드 광산에서 채굴한 희토류 광석을 국외로 옮겨 분리·정련할 계획으로, **지금까지는 분리·정련 공정을 중국 기업에 위탁**하고 있었지만,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을 새로 구축해 일본에 공급할 예정**

- 일본은 희토류 공급망을 **안보의 관점**으로 보고, **미국과의 희토류 교류도 확대 추진 중**
 - 美 MP머터리얼스는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마운틴 패스' 광산에서 채굴하는 희토류를 日 무역회사 스미토모상사에 직접 판매하기로 하였으며, 새로운 납품 형태는 '23.7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전망'
 - * 日 스미토모상사는 일본 자석 제조업체에 연간 3,000톤의 **네오디움(60번)**과 **프라세오디움(59번)**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일본 자석 소비량의 30%에 해당하는 수준**
-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日 정부는 **자국 영해 내 희토류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24년부터 도쿄에서 남동쪽으로 1,900km 떨어진 태평양에서 희토류를 추출할 계획
- 일본은 '23.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중요물자 공급망 구축을 공식화할 예정이며, 반도체·희토류 등 주요 물자의 공급망 분산을 논의할 계획

출처: 아주경제(23.03.15) 등 KOTRA 도쿄무역관 일본 경제 브리핑 5호 등 KOTRA 언론보도 종합

■ [광물, 미국-캐나다] 미국-캐나다, 핵심광물·반도체 협력

- 미국과 캐나다는 **핵심광물과 반도체** 공급망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 24일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발표에서 "미국과 캐나다는 북미에 강력한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핵심광물의 추출과 가공을 공동***으로 할 것을 시사
 - **(미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채굴 가공**을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 기업에 총 2억 5,000만 달러(약 3,200억원)를 투자**
 - **(캐나다)** 자국 핵심광물 인프라 기금을 통해 **총 15억 캐나다 달러(약 1.4조원)를 핵심광물 생산에 투자**
 - 또한, 양국은 반도체 공급망 유연성 확보를 위한 **공동투자 진행에 합의**
 - 미국은 북미지역 **반도체와 인쇄회로 기판용 패키징 강화**를 위해 **5,000만달러 투자 예정**

출처: 매일경제(23.3.27일)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

■ [식품, 영국] 영국, 유전자 교정 식품 판매 합법화

- 지난 23일 영국 정부는 육류, 계란, 유제품 등 **유전자 교정 식품 개발을 허용**하고, **기존 농산물과 별도의 구분표시 없이 판매하도록 법을 변경**함
 - 영국은 유럽연합(EU) 법률에 따라 그동안 유전자 변형 작물의 상업적 개발을 제한하는 것과 동일하게 유전자 교정 기술 개발에도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았으나, EU 탈퇴 이후 **유전자 교정 기술에 대한 규정을 완화**함
 - 전문가들은 영국이 유전자 교정을 법적으로 허용하면 식량 생산이 늘어나 **영국의 일자리 및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유전자 교정을 통해 **식물성장을 촉진**시키거나 **비료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 한편 영국은 **올해 초 신선식품 공급난**으로 채소 구매제한을 두었던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저장창고를 대량으로 확보***하여 식품 저장용으로 활용하고 있음
 - * 2022년 영국에서 식품 저장용으로 사용된 창고 면적은 4.3백만 제곱피트로, 2007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 기록

출처: FT(23.3.25), 동아사이언스(23.3.24)

■ [바이오, 미국] 美 원료의약품(API)의 최소 25% 자국 생산 목표 제시

- 3.22일(현지시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美 정부가 5년 내로 저분자 의약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료의약품(API)의 최소 25%를 자국에서 생산하겠다는 공급망 강화 목표를 담은 보고서 공개
 - 이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22.9)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 명령*의 후속 조치로, 구체적 이행 전략은 향후 마련 계획
 - * 동 행정명령은 범정부적 접근으로 생명공학·바이오 제조 역량을 강화해 보건·기후변화·에너지·식량안보·농업·공급망 회복력·국가 및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혁신적 해법 창출 계획 포함
- 美 국방부는 이날 별도로 발표한 '바이오 제조 전략' 보고서에서 극초음속 미사일과 차세대 잠수함 같은 첨단무기 개발에 사용될 화학물질 등 지원 분야를 제시하고, 미 기업 중심으로 동맹국과 바이오 제조 생태계 구축 목표 제시
- 이와 관련,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는 "미국 행정부 조치에 관해 주요 수출국이 유럽·중국·일본 등이며, 이번 조치는 중국·인도를 겨냥한 조치로 국내업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

출처: 동아일보(23.03.25), 세계일보(23.03.24) 등 KOTRA 언론보도 종합

■ 【정상회담, 중·러】 중·러 정상, 모스크바서 정상회담 개최 및 공동성명 발표

- 中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에너지 협력,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무역에서 위안화 사용, 협력 확대 등 논의를 위한 정상회담 개최 및 공동성명 발표 (3.21)
- 회담 이후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2030년 내 중·러 경제협력 중점 방향 발전계획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 및 공동 기자회견 개최
 -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 동북아 지역의 평화 및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 각 관련 측 이익에 부합함을 강조하며, 대러 독자제재에 반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책임있는 대화' 촉구 내용 포함
 - (2030년 내 중러 경제 협력 중점 방향 발전계획에 관한 공동성명) 8개* 중점 방향에서 양자 간 경제협력 추진 언급
 - * ① 양국 무역 규모 확대·전자상거래 등 협력 모델 발전, ② 물류 시스템 상호 연계 강화, ③ 위안화 사용 확대 등 금융 협력 수준 강화, ④ 에너지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⑤ 야금·화학비료·화공제품 등 대중상품 및 광산자원 분야 상호 공급 협력 강화, ⑥ 기술 및 혁신 분야 교류 협력 촉진, ⑦ 공업 협력 강화, ⑧ 농업·식량 안보 협력 강조
- 회담 관련 美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은 '중국-러시아 확대 정상회담에 대한 전문가 논평' 제공
 - 美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 외교 전문가들은 '중·러 전략적 협력을 통한 장기적인 미중경쟁 대비', '중·러 표면적 협력 관계, 실제 성과는 미미', '중·러 협력은 서방세계와 정치·경제적 디커플링 추진 과정의 일환' 등으로 평가

출처: 중국 외교부(3.22), 인민망(3.23)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공급망 뉴스 더하기 ① : EU,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 발표

◆ EU 집행위는 원자재 부문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과 청정 기술의 역내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산업법(NZIA)** 초안을 발표(3.16)했다. 발표된 초안은 EU 역내국에 생산공장을 둔 국내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바, 초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EU 집행위,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 발표(3.16)

- EU 집행위가 발표한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에는 △EU 차원 목표 설정, △전략·핵심 원자재 지정, △규제 환경 개선, △공급망 감사 실시, △재활용 의미 부여 등 정책 추진내용 포함
- (단계별 역내화 및 수입 의존도 완화) '30년까지 연간 전략원자재 소비량 대비 역내 채굴 10%, 정제 40%, 재활용 원자재 생산 15% 목표 설정
 - * 수입의 경우 '30년까지 EU 연간 소비량의 65% 이상을 단일한 제3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입 다변화
- (핵심·전략원자재 목록 제시) '20년 기선정한 30개 핵심원자재(CRM)목록을 업데이트, 별도 전략원자재 지정
 - * EU는 '11년부터 핵심원자재 목록을 지정하여 3년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며, 추후 핵심원자재·전략원자재 선정기준, 관련 산정방식, 대상 원자재 목록을 제시하고 4년마다 업데이트 예정

〈핵심원자재 및 전략원자재 구분〉

	핵심원자재	전략원자재
정의	· 경제적 중요도가 높고, 공급망 위기가 임계값에 가깝거나 초과한 원자재	· 전략적 중요도가 높고 미래 수요와 현재 생산 간 격차가 크며, 즉각 생산 확대가 어려운 원자재
목록	· 안티모니, 보크사이트, 중정석, 베릴륨, 비스무트, 붕소, 코발트, 점결탄, 형석, 갈륨, 게르마늄, 하프늄, 중희토류, 경희토류, 리튬, 마그네슘, 천연흑연, 니오븀, 인암, 인, 백금족, 스칸듐, 금속규소, 스트론튬, 탄탈럼, 티타늄, 텅스텐, 바나듐, 비스, 헬륨, 구리, 망간, 장석, 니켈(배터리등급)* 총 34개 * 기존 핵심원자재 목록에서 6개 원자재 신규 추가, 기존 목록에서 인듐·천연고무는 제외	· 비스무트, 붕소(금속급), 코발트, 구리, 갈륨, 게르마늄, 리튬*, 마그네슘메탈, 망간*, 천연흑연*, 니켈*, 백금족, 영구자석용희토류(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 테르븀,디스프로슘,가돌리늄,사마륨,세륨), 금속규소, 티타늄, 텅스텐 총 16개 * 배터리등급 표기

- (역내외 전략 프로젝트 선정·지원) 역내외 전략 프로젝트 선정기준, 허가 간소화, 자금조달 내용 발표

구분	내용
선정기준	· △ 전략원자재의 공급안보 기여도, △ 기술적 타당성 입증, △ 관련 ESG 책임 준수하는 역내외 프로젝트 * 역내 프로젝트일 경우 최소 2개 이상 회원국에 이익이 되고, 역외 개도국 진행 프로젝트의 경우 EU와 해당국 간 상호 이익이 되어야 함
허가 간소화	· 채굴이 포함된 전략 프로젝트 2년 내, 가공 또는 재활용 부문 프로젝트는 1년 내 허가 * 전략 프로젝트 승인 전 허가신청 절차가 시작된 프로젝트는 허가기간 3개월 추가 단축
자금조달	· 핵심 원자재 위원회*를 통해 가용 자금 논의, △유럽투자은행 등 금융기관 자체 상품, △국가 보조금, △EU기금 활용 검토 * 집행위-회원국간 고위급 위원회 구성, 프로젝트 검토, 모니터링 지원, 원자재 목록 개정, 국가별 진행사항 등 논의 예정

- (역내 전략기술 관련 대기업 공급망 감사의무 부과) 전략원자재의 주요 소비처인 '전략기술'을 지정, 관련 대기업 (고용규모 500명 이상, 전년도 글로벌 순매출 1억5천만 유로 이상)에 2년마다 공급망 감사 및 관련 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의무
 - * 전략기술 목록: 에너지 저장 장치, 전기차용 배터리, 수소 생산 및 활용 관련 장비,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장비, 견인 모터, 히트 펌프, 데이터 전송 및 저장, 모바일 전자 기기, 적층 제조 관련 장비, 로봇 공학, 드론, 로켓 발사기, 위성 및 첨단 칩

- (지속가능성 요건 강화를 통한 재활용 확대) 광산 폐기물 내 핵심원자재 함량 및 회수 가능성 등 평가 시행, 영구자석 포함 제품 대상 △2차 원자재 회수 목표 제시, △사용된 모든 영구자석 관련 정보 등 공시, △탈부착 등 재활용 용이하도록 제품 설계
 - (시사점) 역내에서 '전략기술' 제품을 생산하거나 및 영구자석 포함 제품을 출시하는 기업은 향후 집행위 입법 동향에 대비 하고 EU와 협력 기회 모색 필요
 - 대기업에 공급망 감사 의무가 부가되어 관련 대비 필요
 - 영구자석 포함 제품을 역내 출시하는 기업은 향후 제품 라벨링 및 영구자석 회수에 관한 에코디자인 요건 강화 주의
 - 전략 프로젝트 선정기준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EU 및 국제 규범*을 골자로 할 예정으로 관련 유의 요망
- *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공급망 실사지침(CSDD),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비롯 ILO, OECD의 ESG 관련 실사 규범

■ EU 집행위,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초안 발표(3.16)

- EU 집행위가 발표한 탄소중립산업법(NZIA) 초안에는 △역내 생산 목표, △인허가 간소화, △공공조달 및 보조금 제도 수립 방향 제시 등 정책 추진내용 포함
 - (8대 전략기술 지정)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정의 제시 및 중점 지원 대상인 8대 전략기술* 별도 지정
 - * ① 태양광 발전 및 태양열 기술, ② 육상 풍력 및 해상 재생가능 기술, ③ 배터리 및 저장, ④ 히트펌프 및 지열 에너지, ⑤ 전해조 및 연료전지, ⑥ 지속가능한 바이오 가스·메탄 기술, ⑦ 탄소 포집·저장 기술(CCS), ⑧ 그리드 기술
 - 일부 원자력 기술*은 전략기술에는 미포함이나, 탄소중립 기술 정의에는 포함돼 프로젝트 인허가 간소화 등 수혜 전망
 - * 연료 주기 내 폐기물 최소화 원자력 발전 첨단 기술,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관련 등급 최고 수준 연료
 - (목표) '30년까지 탄소중립 전략기술 연간 수요의 40% 역내 생산, 연간 최소 5천만 톤의 탄소 저장 목표 수립
 -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 전략기술 분야 제조 능력 향상 및 역내 관련 산업 공급망에 기여 시 인정
 - (인허가) 프로젝트 유형별 허가 시한을 명시, 기존 생산시설 확장의 경우 상기 기한의 절반 내 허가

구분	연간 용량 1GW 초과	연간 용량 1GW 미만	GW로 산정불가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	12개월	9개월	12개월
기타 탄소중립 프로젝트	18개월	12개월	18개월
탄소 저장 프로젝트	이산화탄소 저증저장에 관한 지침 부합하는 저장 시설 허가 최대 18개월		

- (공공조달·보조금) 전략기술 조달 입찰 시 지속가능성 및 공급망 회복력 기여도* 평가
 - * 에너지 시스템 통합 여부, 단일 공급원에 65% 이상의 부품 조달 여부 등 고려
 - * 다만,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 기준 적용에 따라 10%를 초과하는 가격 불균형 발생 시 사업 주체는 해당 기준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중국 의존도 완화 목적 달성의 한계로 평가됨
- 탄소중립산업법 관련 현지 싱크탱크 반응 : '유출분 대비 우회적인 유럽산 우대조항이 완화되었다'
 - 현지 싱크탱크는 당초 공공조달에 제3국 생산비중을 고려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우려를 제기하였으나, 최종 초안에는 '65% 이상을 단일 공급원에 의존할 경우 다각화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항목으로 대체, 일부 완화
- 현지 언론, 중국·터키산이 65% 임계치를 초과할 것이라 추정되나, 두 국가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으로 WTO 분쟁 비화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

공급망 뉴스 더하기 ② : 美 상무부, CHIPS Act 가드레일 조항 세부 내용 발표

◆ 美 상무부는 반도체 보조금 지원에 따른 우려국 투자·R&D 제한 규칙인 가드레일 조항(Guardrail Provision) 규칙 개정안을 공지(3.21)했다. 규칙 제정안은 크게 5개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아래와 같이 항목별 조항을 자세히 알아보자.

■ 미 상무부, CHIPS Act 가드레일 조항 규칙 개정안 공지(3.21)

- 美 상무부는 반도체 보조금 지원 관련 CHIPS Act 가드레일 조항 규칙 개정안을 공지하고, 공시 이후 60일간 공개의견 접수를 진행할 것으로 발표
 - 기존 상업용 제조시설 지원 방안(2.28)에 포함된 ① 10년간 우려국 내 반도체 설비 증설 제한, ② 우려국과의 연구 협력 및 기술 면허 허가 제한 등에 대한 세부 사항 포함
- 규칙 개정안은 크게 5개 항목으로 구분되며, 보조금 수혜기업의 우려국 내 기존 시설 운영 시 준수 사항 포함

〈美 CHIPS Act 가드레일 조항 규칙 개정안 내용〉

항목	내용
우려국 내 첨단(Leading-Edge) 생산설비 확장 제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평일로부터 10년간 우려국과 관련된 \$10만 이상의 거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 거래와 합의 기간 내 누적액에 모두 적용, 우려국을 포함한 모든 거래는 상무부 통보 필요 ▶ 10년간 우려국 내 시설의 생산 능력 5% 이상 확장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능력 5%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의 기존 시설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가능
우려국 내 레거시(구형) 반도체 생산 시설 확장 제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라인 추가 또는 시설의 생산 능력 10% 이상 확장 금지 ▶ 우려국 국내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만 신규 시설 건설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시설의 생산품 중 최소 85%가 해당 국가 내 소비되는 최종 제품에 포함 ▶ 현재 레거시* 반도체 기준: ① 28nm 이상 로직 반도체 칩, ② 18nm 이상 하프피치 DRAM 칩, ③ 128단 이하 NAND 플래시 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무부는 '24.8.9까지 레거시 반도체 재지정 및 향후 8년간 2년마다 개정 예정
일부 반도체 '국가 안보 중요 품목'으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 및 정보 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8개 품목을 선정하고, 향후 선정 품목에 대한 제한을 강화할 전망 <div style="border: 1px dashed orange; padding: 5px; margin-top: 10px;"> 국가 안보 중요 품목 반도체: ① 화합물(compound) 반도체, ② 그래핀 및 탄소 나노튜브와 같은 1D·2D 탄소 동소체를 포함한 나노 소재를 활용한 반도체, ③ 와이드 밴드갭(wide-bandgap)/울트라 와이드(ultra-wide) 밴드갭 반도체, ④ 방사선 경화 공정(RHBP) 반도체, ⑤ 완전 공핍형 실리콘 인슐레이터(FD-SOI) 공정 반도체, ⑥ 실리콘 포토닉스(photonic) 공정 반도체, ⑦ 양자 정보 시스템용 반도체, ⑧ 극저온(cryogenic) 환경용 반도체 </div>
산업안보국 (BIS) '22.10월 수출통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모리칩에 관한 기준은 '22.10월 수출통제 조치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로직칩 관련 기준은 수출통제에서 발표된 수준보다 엄격히 적용
우려국 관련 단체와의 공동 연구 및 기술 면허 허가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연구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수행하는 모든 R&D로 정의 ▶ 기술 면허는 다른 당사자가 특허·영업 비밀·노하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으로 정의

○ 공급망 돋보기 : 캐나다의 핵심광물 가치사슬 구축 전략

◆ 녹색·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핵심광물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한 캐나다**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핵심광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급 위기를 줄이기 위해 **핵심광물 가치사슬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 캐나다의 핵심광물 보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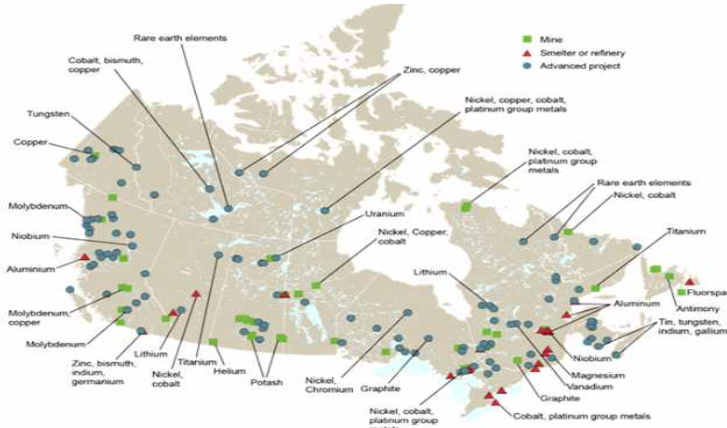
- 핵심광물은 매장량이 많지 않고 대체제가 없으며 전략적이고 제한적인 원자재로, **캐나다는 국토 전역에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

• 캐나다는 **코발트, 흑연, 리튬, 니켈** 등을 풍부하게 보유한 서방 국가 중 하나이며, 항공 산업에 매우 중요한 **니오븀** 매장량은 세계 2위이고 반도체와 전기차 제조에 필요한 핵심 재료인 **인듐** 매장량은 세계 4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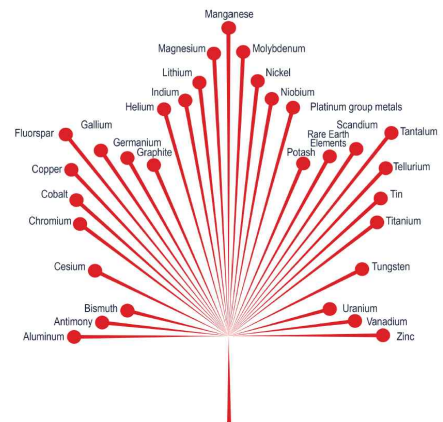
* 매장량 : 리튬(53만톤), 니켈(280만톤), 코발트(22만톤), 희토류(83만톤), 백금족(310톤) 등

• 퀘벡주, 온타리오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에서 주로 광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칼리 생산량은 세계 최대이고 **알루미늄, 인듐, 니오븀, 백금족, 티타늄 정광, 우라늄은 세계 5대 생산국**

〈캐나다의 핵심광물 매장지〉



〈캐나다 31종의 핵심광물〉



- 현재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60여 종의 광물 중에서 **니켈, 탄산칼륨, 우라늄 등의 31종이 핵심광물로 선정**

• (선정조건) ▲ 캐나다의 경제 안보에 필수 및 공급 위협 존재,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 ▲ 캐나다의 협력 국가나 동맹국에서 고도의 전략적 핵심광물에 포함 등의 3개 조건 중 하나를 충족

• (선정방식) 주와 준주, 산업 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선정되며, 캐나다의 31종의 핵심광물은 향후 수급과 기술 개발, 사회적 필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검토 및 갱신

• (6대 핵심광물) 31종의 핵심광물 중 **리튬, 흑연, 니켈, 코발트, 구리, 희토류**는 6대 주요 핵심광물로, 캐나다의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과 주요 공급망의 필요성 때문에 핵심광물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지정**

• (기타 핵심광물) 캐나다에서 **제조업에 이용되고 있지 않지만**, 동맹국에게 수출하거나 캐나다에서 정제, 가공, 부품 제조를 확대하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광물

* 바나듐, 갈륨, 티타늄, 스칸듐, 마그네슘, 텔루륨, 징크, 니오븀, 게르마늄, 탄산칼륨, 우라늄, 알루미늄 등이 기타 핵심광물에 포함

■ 캐나다의 핵심광물 가치사슬 구축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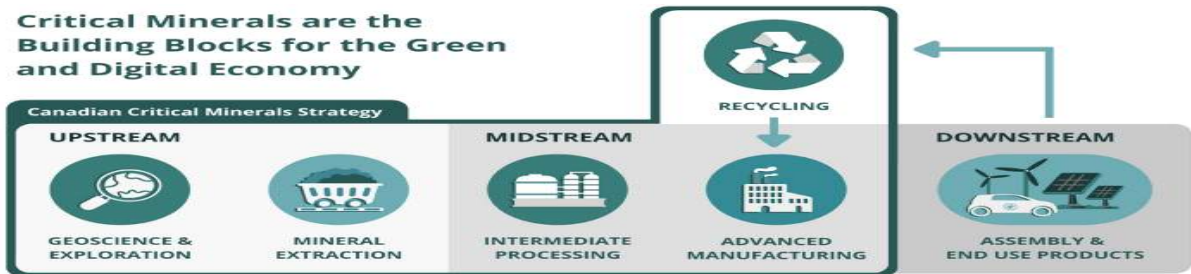
㉑ 구축 배경

- 전 세계적으로 녹색·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핵심 광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핵심광물의 생산, 가공 및 재자원화를 함께하는 인프라 구축**이 요구
- 러·우 사태에서 보듯이 핵심광물이 특정한 곳에 집중되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므로, **캐나다는 동맹국과 협력하여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및 새로운 가치사슬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

㉒ 구축 전략

- **산업 공정의 여러 단계를 국가적으로 통합하여 캐나다 내에서 경쟁력 있는 핵심광물의 가치사슬을 구축**
 - 핵심광물의 가치사슬 구축은 **탐사에서 재자원화까지** 가치사슬의 각 단계와 그 사이의 모든 단계에서 역량 구축을 의미
 - 즉, 외국에서 가공할 광물 자원을 수출하고 국내 제조를 위해 가공된 광물 또는 최종 상품으로 재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가 캐나다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합된 산업생태계 구축**이 목표
 - 캐나다의 핵심광물 가치사슬은 ▲ 상류부문(탐사), ▲ 상류부문(채굴), ▲ 중류부문(반가공), ▲ 중류부문(첨단 제조), ▲ 재자원화 등 5단계로 구성

〈캐나다 핵심광물의 가치사슬〉



- 캐나다에서 국가적으로 통합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핵심광물의 가치사슬 분야로는 ▲ **청정 기술**, ▲ **정보통신 기술**, ▲ **첨단제조**의 소재 및 재료가 있으며, 핵심광물의 경쟁력 있는 개발을 위해 **핵심광물의 생산지역에서 청정 기술 등의 전략적 인프라를 투자·구축**

〈캐나다에서 잠재력이 가장 높은 가치사슬 분야〉

핵심 광물	가치 사슬 분야
리튬, 흑연, 니켈, 코발트, 구리, 바나듐, 티타늄, 스칸듐, 마그네슘, 텔루륨, 아연, 니오븀, 게르마늄	(청정 기술) 무공해 자동차, 풍력 터빈, 태양광 패널, 첨단 배터리, 수소 연료 전지, 소형모듈원자로(SMR)
갈륨, 게르마늄	(정보통신 기술) 반도체
리튬, 니켈, 구리, 희토류, 바나듐, 티타늄, 스칸듐, 마그네슘, 아연, 니오븀, 게르마늄	(첨단 제조의 소재 및 재료) 국방, 영구자석, 세라믹, 고부가가치 금속, 전자재료, 합성 물질, 폴리머, 바이오소재

㉓ 기대 효과

- 산업 공정의 통합과 녹색·디지털 경제를 위한 핵심광물 개발은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촉진하여 보다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하고, 새로운 핵심광물의 가치사슬을 통해 캐나다는 지속가능한 광물 생산자 및 **글로벌 광물·금속의 공급자로서의 위치를 고수**

공급망 전문가 :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美 정부의 노력과 과제 1편

- GAO, "SUPPLY CHAIN RESILIENCE : Agencies Are Taking Steps to Expand Diplomatic Engagement and Coordinate with International Partners (2023/2)" 요약

팬데믹, 러우전쟁 등으로 공급망 중단이 발생한 이후 美정부는 공급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지난 2월 상무부, 국무부, 무역대표부(USTR)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 확대와 애로 등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내용을 통해 美 정부의 공급망 정책 동향을 살펴보자

〈美보고서 요약〉

(51호) 배경 및 현황

(52호) 과제 및 극복방안

1.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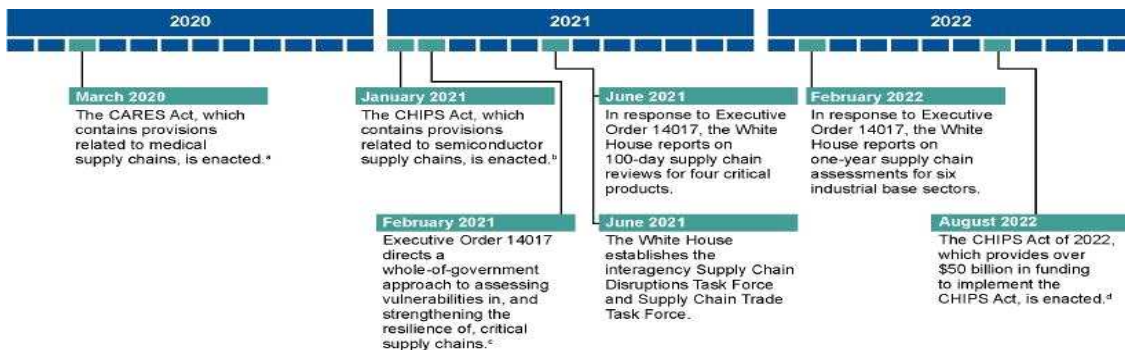
■ 코로나19, 러-우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중단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침

- 팬데믹은 세계 경제 침체와 공급망 붕괴로 이어졌으며, '22년 러-우 전쟁은 글로벌 에너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을 일으켜 공급망 위기가 더욱 가중됨
- 공급망 중단으로 의약품 등 국가의 핵심적 산업문제가 발생했으며, 특히 반도체와 같이 지리적으로 복잡하게 분산된 산업의 경우 공급망 위기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 미 정부는 팬데믹 이후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음

-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호 및 경제안정법(CARES Act), 21년 1월 반도체법(CHIPS Act)에 이어 '21년 2월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E.O 14017)을 발동
- 이에 따라 '21년 6월 미 정부는 4대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 100일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공급망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두 개의 부처 합동 공급망 TF를 구성
 - 공급망 교란 TF(Supply Chain Disruptions Task Force) : 상무부, 교통부, 농무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건설, 반도체, 운송, 농업 및 식품 분야의 공급망 교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룸
 - 공급망 무역 TF(Supply Chain Trade Task Force) : USTR이 리드하는 등 TF는 불공정한 대외무역 관행 검토 및 미국/파트너국의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방법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22년 2월, 행정명령 14017 발동 1주년을 맞아 7개 부처는 국방, 에너지, 운동, 농업 및 식품 등 6개 산업 기반 부문에 대한 공급망 취약성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
- 공급망 취약성 검토 결과보고에서는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을 권장했으며, 이에 따라 상무부, 국무부 및 USTR의 외교적 확장 노력이 활발히 진행

〈 공급망 강화를 위한 미국 정부의 시기별 조치 〉



2. 상무부, 국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의 공급망 강화 노력

■ 상무부, 국무부 및 USTR은 공급망과 관련한 외교적 활동을 강화해 오고 있음

- 동 기관들은 공급망 회복탄력성 및 미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
 - 특히 상무부의 국제무역관리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및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국무부의 경제경영사무국(Bureau of Economic and Business Affairs), USTR의 소기업, 시장접근 및 산업경쟁력 오피스를 중심으로 공급망 회복탄력성 문제를 다루고 있음
- 바이든의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E.O14017) 이후 위 기관을 중심으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22년 10월 기준 각종 커뮤니케이션, 워킹그룹, 포럼 등 12건 이상의 양/다자간 협력이 진행중

〈다자간 협의체 예시〉

활동명	시작일	담당기관	목표
쿼드(QUAD)	'21.3	상무부, 국무부	팬데믹 대응 및 국제 안보, 신기술, 사이버 보안 등 협력
미-EU 무역기술 위원회	'21.6	상무부, 국무부, USTR	주요 부문에 대한 공급망 탄력성 및 글로벌 기술, 경제, 무역 접근방식 논의
IPEF	'22.5	상무부, USTR	무역, 공급망 회복력, 친환경에너지 관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참여 확대
광물 안보협의체	'22.6	국무부	주요국간 광물자원 공급망 강화
공급망 장관급 포럼	'22.7	상무부, 국무부	단기 공급망 위기 극복 및 장기적 회복탄력성 강화 노력

〈양자간 협의체 예시〉

활동명	시작일	담당기관	목표
미국-멕시코 고위급 경제회담	'21.9	상무부, 국무부, USTR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해결, 포용적인 무역 및 투자 촉진
미-대만 기술무역 및 투자 협력	'21.12	상무부	반도체, 5G, 전기차, 친환경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한 핵심적 공급사슬 강화
한미 공급망 대화	'22.5	상무부	디지털 경제 부문의 협력, 반도체를 포함한 제조부문 및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

미-EU 무역 및 기술위원회 장관급 미팅('21.9)



미국-멕시코 고위급 대화 기자간담회('22.9)



○ 공급망 소식통 : 2023 상반기 불업코리아 수출상담회 개최 안내

[2023 상반기 불업코리아 수출상담회(Korea Biz-Trade Show 2023)]

- 일시/장소 : '23.4.12(수)~13(목) / COEX A홀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KOTRA
- 개요 : 우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국가 무역진흥기관인 KOTRA 주관의 산업별 종합 수출상담회
- 프로그램 : 수출상담회(온/오프라인) 및 우리기업 쇼케이스, 산업별 세미나 등
- 참가규모 : 방한 바이어 400개사, 국내기업 1,600개사

■ 2023 상반기 불업코리아 수출상담회(Korea Biz-Trade Show 2023)란?

-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 선점을 통해 연내 무역수지 흑자 전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개최된 2023 상반기 불업코리아 수출상담회는 방한 바이어 400개사, 국내기업 1,600개사가 참여하는 KOTRA 대표 오프라인 마케팅 사업

■ 주요 프로그램 : 수출상담회 & 부대행사

	구분	내용																	
수출상담회	산업별 사전매칭 수출상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소부장, 서비스, ICT, 바이오, 공공조달 각각의 산업별 전문기관, 중소중견기업 전담부서 협업 통한 참가기업 모집해 사전·사후 마케팅 지원과 연계한 성과 확대 · (규모) 바이어 400개사, 국내 1,430개사 																	
	국내기업 샘플 전시상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소부장, 서비스, ICT 등 분야별 전시상담관 및 참가기업이 샘플을 전시할 수 있는 '미니쇼케이스'로 구성 · (규모) 바이어 400개사, 국내 170개사 																	
	지방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지역) '23.4.14(금) / 부산,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 (품목) 조선, 기계 등 소부장(부산, 대전세종충남), 종합(충북), 소비자(전북) · (규모) 해외 바이어 85개사, 국내기업 180개사 내외 																	
부대행사	산업별 세미나 및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4.12(수)~13(목) 양일간, 9:30~17:30 · (장소/규모) COEX 컨퍼런스룸 318호 / 설명회별 200명 내외 · (주제) 산업별 해외진출 전략 설명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시간/장소</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4.12</td> <td>9:30-10:50</td> <td>○ 중국 지역 테마 세미나</td> </tr> <tr> <td>11:10-12:30</td> <td>○ UN 조달시장 진출 세미나</td> </tr> <tr> <td>13:30-15:20</td> <td>○ 에듀테크/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전략 세미나</td> </tr> <tr> <td>15:30-17:20</td> <td>○ 유통망 입점 설명회</td> </tr> <tr> <td>17:20-17:30</td> <td>○ KOTRA DX가속화팀 사업소개</td> </tr> <tr> <td>4.13</td> <td>10:30-12:30</td> <td>○ 생성형 AI 글로벌 트렌드 및 진출 세미나</td> </tr> </tbody> </table>	구분	시간/장소	내용	4.12	9:30-10:50	○ 중국 지역 테마 세미나	11:10-12:30	○ UN 조달시장 진출 세미나	13:30-15:20	○ 에듀테크/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전략 세미나	15:30-17:20	○ 유통망 입점 설명회	17:20-17:30	○ KOTRA DX가속화팀 사업소개	4.13	10:30-12:30	○ 생성형 AI 글로벌 트렌드 및 진출 세미나
	구분	시간/장소	내용																
4.12	9:30-10:50	○ 중국 지역 테마 세미나																	
	11:10-12:30	○ UN 조달시장 진출 세미나																	
	13:30-15:20	○ 에듀테크/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전략 세미나																	
	15:30-17:20	○ 유통망 입점 설명회																	
	17:20-17:30	○ KOTRA DX가속화팀 사업소개																	
4.13	10:30-12:30	○ 생성형 AI 글로벌 트렌드 및 진출 세미나																	
수출컨설팅 및 사업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인증), 관세청(통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출통계) 등 수출 프로세스 지원기관 홍보 및 컨설팅 · BuyKOREA 및 TriBIG 활용, 디지털 무역 전 단계 체험관 운영 · 맞춤형 수출기업 컨설팅을 통한 현장 애로 해소 및 수출성약 지원 · 부산엑스포, 경제협력사업, 국내복귀, 투자 M&A 등 KOTRA 사업 홍보 																		

글로벌 경제지표('22. 3. 29. 수)

[환율]

구분	'21말	'22말	'23.2말	3/27	3/28	3/29	전일비	22말비
₩/U\$	1,188.80	1,264.50	1,322.60	1,301.50	1,298.80	1,302.70	0.30	3.02
선물환(NDF, 1월물)	1,190.00	1,265.30	1,322.20	1,298.50	1,296.10	1,300.60	0.35	2.79
₩/CNY	186.51	181.44	190.72	189.30	188.88	189.24	0.19	4.30
₩/Y100	1,032.48	945.56	970.50	991.39	991.75	987.72	△0.41	4.46
Y/U\$	115.14	133.73	136.28	131.28	130.96	131.89	0.71	△1.38
U\$/EUR	1.1318	1.0617	1.0585	1.0755	1.0815	1.0825	0.09	1.96
CNY/U\$	6.3681	6.9630	6.9411	6.8822	6.8816	6.8918	0.15	△1.02

* '22년 평균 환율: (₩/U\$) 1292.2원, (₩/¥100) 983.8원, '23년 평균 환율('23.1.1~현재): (₩/U\$) 1275.9원, (₩/¥100) 964.0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분	'22년 최저(해당일)	'22.12.31	'23.3.27(전일)	'23.3.28			
					전일비(3.27)	'22년최저비	'22년말비
원유(두바이)	71.83(12.12일)	78.77	74.77	77.89	3.1	6.1	△0.9
					4.2%	8.4%	△1.1%
철광석	79.50(10.31일)	117.35	121.65	123.70	2.1	44.2	6.4
					1.7%	55.6%	5.4%
비철금속	구리 7,000.00(7.15일)	8,387.00	8,876.00	8,934.00	58.0	1934.0	547.0
					0.7%	27.6%	6.5%
					알루미늄 2,080.00(9.28일)	2,360.50	2,298.00
					0.7%	11.3%	△1.9%
	니켈 19,100.00(7.5일)	30,425.00	23,875.00	23,600.00	△275.0	4500.0	△6825.0
△1.2%					23.6%	△22.4%	

[반도체]

구분	'21	'22	'22.12월	'23.1월	'23.2월	3/24	3/27	3/28	3월(~28)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2.05	1.93	1.83	1.69	1.68	1.67	1.72
(%, YoY)	29.9	△23.0	△40.3	△48.2	△52.9	△55.0	△55.1	△55.0	△55.4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53	6.51	6.46	6.40	6.40	6.40	6.42
(%, YoY)	14.7	10.7	△12.4	△13.7	△15.5	△19.8	△19.8	△19.8	△18.6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분	'21.12.31	'22.12.30	'23.3.3	3.10	3.17	3.24	전주비(3.17)	'21년말비
운임지수	5046.66	1107.55	931.08	906.55	909.72	908.35	△0.2%	△82.0%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분	'21.12.24	'22.12.23	'23.3.3	3.10	3.17	3.27	3.28	전일비(3.27)	'21년말비
BDI	2217	1515	1211	1424	1535	1456	1402	△3.7%	△36.8%



뉴스레터를 만드는 사람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한국무역협회(KITA) 공급망분석팀	김 경 훈 김 희 영 박 가 현 도 원 빈 최 수 빈
KOTRA 글로벌공급망지원팀	이 병 옥 신 재 훈 이 윤 지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미래전략연구팀	석 주 현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 문 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피드백하러 가기 : <https://forms.gle/sftFKhLd4Xh49pxu9>



뉴스레터 구독신청



뉴스레터 피드백

주관기관



협력기관

